

제2회 환경기술상서 국무총리상 수상

## 환경보호 실천하는 환경장인

최 병 수 / 경북기계공작소 사장

“남 다른 노력으로 성공을 기도하자”. 제 2회 환경기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북기계공작소 최병수 사장이 강조하고 실천하는 좌우명이다.

최 사장이 환경기술상을 수상한 것은 페스티로폴 감용기의 개발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다. 우리 주변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페스티로폴이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을때 최 사장은 부피를 줄여 물류비를 저감하고 나아가 리사이클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신수요 창출, 재자원화 원료로 각광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구개발에 나섰다.

원시적인 설비는 80년에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크기가 크고 가격도 비싸 실효성이 없어 제2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이때 스티로폴 생산업체들이 경기도 시화에 페스티로폴 처리시설을 갖출 계획을 세우자 최 사장은 이를 적극 반대했다.

이유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스티로폴을 모으는 것도 문제지만 엄청난 물류비와 교통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감용기를 대량발생처나 광역별로 설치하여 인고트형태로 만들면 부피를 150~2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대량수거가 가능하고 운반도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사회,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욕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 환경설비를 만들게 했다”는 최 사장은 92년 개발을 완료했을 당시 학계, 언론, 관련단체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제품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와 판로가 어려워 사장될 지경에 이르는 아픔도 겪었지만 환경에 대한 노력과 일념은 그를 멈출 수 없게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망도 했지만 대국적인



▲ 제2회 환경기술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최병수 사장

견지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곳곳하게 매진할수 있었고 환경기술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맛볼 수 있었다.

“이번 수상은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공직자(현 양천구의회 의원), 사업가로서 더 큰 기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명령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최 사장은 제2, 제3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물론 이 연구도 환경저감처리운동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 유용한 자원으로 돌리는 것이다. 어느정도 타당성도 있고 일도 진척되고 있지만 문제는 기술개발비의 문제가 따른다. 30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 비용을 조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누군가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최 사장 혼자서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겠지만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단체 등이 적극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기간을 단축시켜 수십배에 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신감도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남다른 고집과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1회용품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규제일변도의 법보다는 시민의식이 따라올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선진국형인데 시민의식은 이에 따라올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미국가들은 버리는 사람, 수거하는 사람, 재생하는 사람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적, 경제적 지원이 따릅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최 사장은 반문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부담금이나 예치금이 생산

자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지워지고 이를 수거하고 재생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원인자 부담원칙이 된다는 것이다.

최 사장은 남과 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해야 앞설 수 있다는 지론이다. 그는 기술이나 경제적인 것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독점이거나 우위에 서서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개발에 재투자하는 과정도 결국 사회환원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는 15년전부터 소년소녀가장 돕기와 라이온스클럽 활동, 청소년지도위원 등 사회의 그늘진 곳, 사기가 저하된 사람들을 위해 사회활동도 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리 진심을 담은 성의를 무시하는 경우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요즘엔 환경 파수꾼으로, 환경에 대한 장인 정신으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등 가연성 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는 설비의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기계는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임이 틀림없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 비용부담이다. 큰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아낌 없는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업성도 어느정도 보장돼야 할 것 같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환경설비 제작에 나서고 있다는 최 사장.

건투와 박수를 보낸다. [K]

〈鎮〉